

민주 “檢 이재명 연속 소환은 설 민심 겨냥 망신주기”

원내대표회의... 박홍근 “안보·외교 참사, 경제무능 덮으려 악마화” 김건희 추가조작 편파수사 규탄...이재명 출석 여부 연휴 직후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표에게 전날 소환조사를 통보한 검찰에 파상공세를 펼쳤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재차 소환장을 보낸 것은 설날 민심을 염두에 둔 ‘정치 검찰’의 공세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과 검찰의 재소환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등 총공세를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현직 야당 대표를 6일 만에 다시, 그것도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적이 올라올까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

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권의 안보참사, 외교참사와 경제 무능이 설 밥상에 오르려 하자 검찰이 야당 대표 소환으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오직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와 이재명 대표 때려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달정너 기소’로 이재명 악마화, 이재명 흑화를 하려 한다”며 “이 대표를 사실상 집단 린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난과 수난 없이 크는 지도자는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 때 사형선고를 받았고,

박정희 정권 때는 동경에서 수장당할 뻔까지 했다”며 “이런 과정을 다 극복하면 이 대표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진상조사TF’는 함께 대검찰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기도 했다.

검찰이 오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가 이번에도 직접 검찰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연휴 직후에나 ‘출석 여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소환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는 검찰의 ‘릴레이 소환’이 사실상 망신주기성 의도가 분명하니 불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결백을 입증하려면 이번에도 당당하게 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사법리스크 분리 대응’을 주장하는 비이재명계와 ‘단일대오 엄호’를 강조해 온 친이재명계의 불협화음도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다.

친문(친문재인)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뭔지를 정해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책임이 무엇인지, 또 책임은 있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장관이 당내 ‘김건희 특검TF’를 두고 ‘이 대표 조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비치면 그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앉아서 죽으라는 이야기냐”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고리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쳤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언제까지 이 대표 수사에 국회 방탄과 검찰 비안으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범죄인의 송환에도 그저 앞뒤 분간 못 하는 의혹 제기로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공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방탄막을 겹겹이 둘러쳐도 범죄 행위를 은폐할 수 없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찰이 이 대표에 재차 소환을 통보한 것을 두고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지난번 ‘성남 FC’ 출석은 시작에 불과하고 대장동애 이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를 빨리 손질하는 것이 민주당이 살길”이라고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검찰, 편파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등이 17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을 향한 방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전대 다음달 10일 컷오프

3월 9일 양자 토론·12일 최종 결과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에 예비경선(컷오프)을 2월 10일경 치른다.

본경선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는 3월 10~11일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과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치른다. 결선투표 전 3월 9일엔 1·2위 후보간 양자 토론회를 한 차례 연다.

장동혁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아직 확정지는 아니지만, 2월 10일께까지 컷오프를 마친 뒤 2월 13일경부터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월

10일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3월 11일경 결선투표를 마친 뒤 3월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컷오프 규모와 방식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합동연설회는 총 7회 열리며, 제주 지역부터 시작해 수도권까지 올라오며 진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장 대변인은 전했다.

당대표 방송토론회는 총 4회 열린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방송토론회는 각각 1회씩 열린다. 이날 회의에선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컷오프 방안도 논의됐다. 선관위는 내달 2~3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5일 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기후위기 시대 산불대응 최첨단 시스템 마련을”

서삼석 의원, 국회서 심포지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기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유례없이 11월간이나 지속됐던 올진·삼척의 사례처럼 최근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이 최근 10년간 발생한 총 피해 면적의 68%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352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3만5582ha의 산림이

훼손되었는데 이중 2만 4086ha가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한 11건의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승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 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발생하는 산불이 국민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증대되고 있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불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사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재수사

문 정부 시절 5000억원대 금융 사기 사건...라임 펀드 사기도 재개 방침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재수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수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합수단은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폐지했다가 작년 5월 한동훈 법무장관이 부활시켰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확인된 것만 1000여명에 5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검찰은 이 일에 정부·여당 인사가 관여했다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단서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태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번에 넘겨받은 옵티머스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남부지검이 수사하다가 역시 흐지부지된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건에서는 4000여명 개인 투자자가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으며,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는 투자자들이 2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즐겨라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 무릎 |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